

공동체와 예술



이용배 교수 (국민대 교수)

서울대학교와 파리1대학 팡테옹스르본에서 공부하였고 국민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16회 개인전, 133회의 단체전과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공공미술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공부 모임인 <창조 창작 회복>과 <인문학과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다.

예술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유별난 데 이들의 내면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 이들은 너무 독특해서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질 때도 종종 있다. 사실 예술가는 남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자체를 가치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예술가는 창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나와 같은 미술가는 자기의 생각을 조형 언어를 통해 나타낸다. 예술가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말이 생긴 것이 바로 이들이 기존의 여타 장치에 의해 억압당하거나 구애 받고 싶

어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예술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교회 안에서 예술가들은 그 자유로움 때문에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고 반면 교회 밖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이런 딜레마에 직면하여 산다. 현대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사회와 교회의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숨겨진 믿음의 비밀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교회와 교회 밖 예술계에서 모두 밀려나 있는 것 같지만 둘 사이를 잇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피 많



제목: 공동체, 스테인리스 스틸, 320 x 250 x 185cm, 2015년 / 이웅배

은 예술품이나 예술적 행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생각하고 더 자세히 바라보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나만을 위한 신앙 혹은 우리만을 위한 신앙으로 규정해버린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분을 우리 교파나 민족, 국가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성숙한 신앙이란 나만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타자(他者)의 하나님으로도 믿는 것이니 그분을 만유(萬有)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한다. 나는 예술가의 자유로운 사고와 태도가 이런 통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향으로 갈 수 없는 부모님의 슬픔을 보고 자라면서 교류와 변화 그리고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 혹은 연결에 대

하여, 동시에 소통의 길이 막힌 장애와 그 고통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전쟁 이후 우리가 사는 땅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여전히 계속되면서, 경제발전과 안보라는 거대담론이 개인의 다양하고 유연한 의사소통을 억압할 때가 많았다. 나는 청년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통을 철조망, 콘크리트 등으로 표현하곤 했다. 그러던 중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해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남녀가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어울려 살 때 소통의 장애와 고통을 넘어서는 조화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동일자와 타자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이질적인 상대방을 자발적이며 보완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는 가치가 옳다고



제목:공동체, 스테인리스스틸, 108 x 235 x 90, 108 x 235 x 90cm, 2016년 / 이웅배

여긴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구불구 불한 배관의 곡선과 다양한 색으로 이뤄진 형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조각가인 나는 작품을 제작할 때 온몸으로 재료와 접촉한다. 창작 과정에서 작가가 재료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은 물론이요 쓰다듬거나 두들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왜냐하면 3차원의 예술인 조각은 시각적인 효과 뿐 아니라 촉각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관객이 내 작품을 감상할 때 만지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관객이 시각과 더불어 촉각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손으로 어루만지면 존

재하지 않던 음악이 표현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촉각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무게, 부피, 질감 등에 의해 형성되는 비가시적인 것들을 만나게 한다. 나는 관객이 단순히 시각적인 세계에 속박되지 않고 보이는 것의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났으면 좋겠다. 